고려후기 선박 출수 주방용품 연구:
13세기 태안 마도 해역 난파선을 중심으로

주경미*

요 약

최근 서해안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은 고려시대 13세기경의 난파선으로서, 전라도 해안 일대에서 당시 수도인 개성으로 곡물을 운반하던 선박들이다. 이 배들에서는 모두 선박의 맨 아래 중앙 부분에 화덕 및 주방을 설치한 후, 배 안에서 직접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해서 먹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주방에서는 식품 조리에 사용하던 각종 주방용품들과 젓갈류와 같은 식품류도 발견되었다. 이 배들에서 발견된 주방 시설과 주방용품은 고려시대 후기 선원들의 일상생활, 특히 식생활 및 공예 문화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타임캡슐과 같은 존재로서, 고려시대 일상생활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 배들에서 확인된 각종 주방용품들의 종류와 성격을 검토하고, 당시 문헌기록에 보이는 고려의 일상생활 문화와 이 선박 출수 유물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12세기에 중국 송나라의 사신으로 배를 타고 고려로 왔던 서긍이 기록한 몇몇 그릇의 형태와 용도는 13세기의 실제 고려 선박에서 실려 있던 주방용품의 성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매우 흥미롭다.

주제어: 난파선, 주방용품, 일상생활문화, 고려 공예, 수중 발굴

* 서울대학교 강사.

I. 머리말

바다를 통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오기는 했지만, 문헌 사료와 물질문화의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역사학계에서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한 분야는 아니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대 해양문화 교류에 대한 문헌 사료가 매우 드물고 조선시대 이후로 해양 문화 교류가 극히 제한되었던 점 때문에, 문헌 기록에 의한 해양 문화 교류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국내외의 수중고고학 발굴 및 조사의 연구 성과는 물질문화 자료를 통한 해양 문화 교류의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외 수중 문화유산 및 수중 고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죠지 배스(1978; 1979), 김용한(2006), 김애경(2007), 김성범(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a, 196-206) 등에 의해서 이미 논의되었으며, 지금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수중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수중 고고학 연구는 1976년대 전라남도 신안군의 해저에서 도자기를 가득 실은 난파선의 발견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발굴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저 출수(出水) 유물의 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최근 국내 해저 출수 고선박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병근(2010), 홍순재(2011) 등에 의해 개괄적으로 고찰되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해저 출수품(出水品)은 수만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조사된 다양한 시대의 고선박들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물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동아시아 해양 문화 교류 연구에 중요한 물질문화적 자료들로서, 이 분야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서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고선박들에서 출

1) 내륙에서 행해진 고고학적 발굴의 경우에는 "흙에서 나왔다"는 뜻으로 "출토(出土)"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해저에서 발굴된 유물들에 대해서는 "출토" 대신 "출수(出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근 학계의 경향이다. 여기에서도 최근 학계의 경향을 따라서 해저 발굴품에 대해서는 "출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수중고고학의 기본적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Bass(1976), Blot(1996), Ballard(2008) 참조.

수된 각종 공예품들을 중심으로, 당시 선상 일상생활 문화의 흔적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고려시대의 고선박은 모두 11척이 발굴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선박의 구조 및 항해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아직까지 고선박에서 출수된 수많은 발굴품에 대해서는 도자기와 목간 등 일부 한정된 분야의 자료에 대해서만 연구되어왔을 뿐, 대부분의 유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선박 내의 선상 생활 문화나 선박을 통한 일상 문화의 교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각 선박들의 보고서에 기술된 단편적인 상황만 지적되었을 뿐,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해저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고선박에서는 도자기 이외에도 다양한 재질의 공예품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공예품들과 함께 발견된 여러 가지 물질문화적 자료들은 당시 선박 내에서 행해졌던 일상생활 문화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마도 인근의 고려 고선박에서 출수된 각종 공예품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일상 문화 및 해상 문화 교류 양상을 폭넓고 새롭게 살펴봄으로서 당시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각 선박들의 발굴 과정에서는 선원들의 일상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출수 상황 및 유물 자료를 통해서 선원들의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의 고려시대 문화 연구사에 매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선박 중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어 주목되는 선원들의 식생활 문화 관련 물질문화 자료 중에서도, 식생활 중 음식의 조리와 저장이 이루어지는 주방공간과 관련된 곳에서 발견된 소위 "주방용품(廚房用品)" 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형식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교적 최근 출수된 태안 마도 인근에서 출토된 3척의 고려시대 후기 난파선 출수품들을 중심으로, 각 선박들의 주방칸 구조 및 주방용품의 구성과 성격 등을 비교, 고찰하겠다. 마도 인근에서 출수된 마

도 1, 2, 3호선은 모두 13세기에 난파된 곡물 운송선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세 척 모두 선상내에서 이루어진 선원들의 식생활 문화 관련 자료가 풍부하게 출수되어 주목된다.[2] 13세기 선박의 일상생활 문화 연구는 항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의 선원 생활 뿐만 아니라, 기항하는 내륙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고려후기 선박 출수 주방용품들은 고려시대 각종 공예 문화의 한 측면이자, 선박을 통한 해양 문화 교류 연구의 중요한 물질문화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II. 고려시대 선박의 수중 발굴조사 현황

1976년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면에서 우연히 발견된 신안선(新安船)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영파(寧波)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항해하다가 침몰한 14세기의 중국 선박으로서, 국내 연안에서 발굴조사된 최초의 고선박이다. 신안선의 발굴 과정에 대해서는 김정기(1977) 및 문화재관리국(1980; 1981; 1984; 1985a; 1988) 등이 이미 보고서를 간행했다. 출수품은 대부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주요 유물들을 도록으로 공개 간행하였다(1977). 최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신안선 출수 유물들을 집대성한 새로운 3권짜리 보고서를 간행하였으며(2006c), 2006년과 2007년에는 주요 유물인 도자기 및 금속기에 대한 특별전과 대규모의 국제 학술회의를 열었다(2006a; 2006b; 2007c; 2007d). 1977년부터 1983년까지 발굴조사된 신안선에서는 2만여점의 도자기, 28톤의 동아시아 동전, 1천여점의 자단목, 7백여점의 금속기 및 기타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그중 도자기는 중국제, 고려제,

2) 고려 고선박에서 일상생활 용품 및 주방 공간이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2003년 군산 십이동파도선의 발굴에서였다(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이후 발굴에서는 발굴 과정에서부터 주방 공간의 시설 및 출수 상황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하고 있어서, 선상의 일상생활 문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고선박 수중 발굴을 담당했던 국립해양연구소의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일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문화재관리국 1988, 14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a, 220-258). 국내 최초의 해저 발굴 난파선인 신안선은 14세기의 중국 선박이지만, 당시 국내외의 해양 문화 교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손꼽히고 있다. 신안선 출수품 중에서는 도자기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李德金 외 1980; 한성욱 200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4a; 2010a), 다양한 해저 출수 유물은 국내 공예사 및 생활 문화 연구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

신안선은 문화재관리국이 해군의 도움을 얻어서 인양했는데, 이후 1994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기관으로서 목포에 정식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한국 수중고고학의 중심 연구소로 자리잡고 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2009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금도 목포와 태안을 중심으로한 서해안 일대에서 수중 발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3)]

신안선의 발굴조사 이후 국내외에서는 여러 고선박 및 고선박 관련 유적들이 해저에서 발굴 조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고려시대 선박의 선체가 확인된 예들은 모두 11건이다. 물론 선체가 확인되지 않고 선박에 실려 있던 도자기만 발굴된 유적도 여러 곳 있는데, 선체 없이 도자기만 발굴된 대표적인 예로는 보령 원산도, 무안 도리포, 군산 비안도, 야미도 등이 있다(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2004c; 2007a; 2007b; 2008b; 200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d, 73-187). 이러한 수중 발굴 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8a),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09a), 서울대학교박물관(2010), 경기도자박물관(2010), 국립중앙박물관(2012) 등에서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a, 8-18; 이종민 2011; 장남원 2008; 2011; 한성욱 2007; 2010). 그러나 선체 없이 출수된 도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연혁에 대해서는 http://www.seamuse.go.kr/body/body.php?id=621(검색일: 2013.06.20). 참조. 2013년의 주요 발굴은 주로 인천 영흥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들은 선상 생활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선체가 발견된 고려 선박 11건 중에서, 2건은 중국 산동성에서 발굴되었으며, 다른 9건은 국내 서남해안 연안에서 발굴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 고선박 11건은 완도선(莞島船), 달리도선(達里島船), 십이동파도선(十二東波島船), 안좌선(安佐船), 봉래(蓬萊) 3호선과 4호선, 대부도선(大阜島船), 태안선(泰安船), 마도(馬島) 1호선 · 2호선 · 3호선 등이다. 이들은 모두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발굴연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발굴조사된 고려 고선박 목록

번호	발굴연도	발굴선박명	발굴지역	난파연대	발굴보고서	주요발굴품
1	1983 ~1984	완도선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12세기 초	문화재관리국 1985b.	선체, 도자기 3만여 점, 선상생활용품
2	1995	달리도선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13~14세기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1999.	선체
3	2003 ~2004	십이동파도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11세기 후반 ~12세기 초반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2005.	선체, 도자기 8천여 점, 선상생활용품
4	2005	안좌선	전남 신안군 안좌도 비금리	14세기 후반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2006d.	선체, 도자기
5	2005	봉래 3호선	중국 山東省 蓬萊市	고려 말 ~조선 초	山東省文物 考古硏究所 外 2006.	선체, 도자기
6		봉래 4호선		고려 말 ~조선 초		선체
7	2006	대부도선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12세기 ~13세기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2008c.	선체, 도자기
8	2008	태안선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12세기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2009b.	선체, 도자기 2만 3천 점, 선상생활용품
9	2009	마도 1호선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1208년경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2010b.	선체, 도자기, 목간, 선상생활 용품, 곡물류
10	2010	마도 2호선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13세기 초 (1219년 이전)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2011a.	선체, 도자기, 목간, 선상생활 용품, 곡물류
11	2011	마도 3호선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1265~ 1268년경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2012c.	선체, 도자기, 목간, 선상생활 용품, 곡물류

현재까지 출수된 고려시대의 선박 유적 11건 중에서 선체내의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달리도선과 봉래 4호선 등 두 건이며, 다른 선박들에서는 대부분 선상 생활문화와 관련된 유물이 조금씩 출토되었다. 특히 최근 발견된 마도 1, 2, 3호선의 경우에는 초기 발굴에 비해서 수중 고고학의 수준이 상당히 발달하여, 발굴과정에서 다양한 선상 생활용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선박 내에서의 선상 생활문화, 특히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은 난파 연대를 고려하여 절대 편년이 가능한 중요한 새로운 물질문화 자료로서, 그동안의 고려 문화 연구를 재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국내 수중고고학 초기 단계에서 발굴된 완도선의 경우에는, 일부 선상 생활용품들이 출수되어 주목되기는 했지만(문화재관리국 1985b, 43-44; 70-72), 발굴 자체가 배의 주요 선적품이었던 도자기의 인양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발견되었던 선상 생활용품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 선박에서 이러한 선상 생활용품들이 발굴되면서 최근에는 발굴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재질의 다양한 주방용 공예품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공반관계에 대해서 발굴보고서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당시 선상의 일상생활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발견의 고려 고선박 중에서 선상 생활용품 및 주방칸 공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군산 십이동파도선의 발굴을 통해서이다. 이 선박에서는 처음으로 중앙 저판 돛대 근처 바닥에서 주방용품 및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선박 내의 주방칸 시설이 본격적으로 확인된 비교적 이른 예로서 중요하다(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232; 236;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10, 102-103).

한편, 중국 연안에서 발굴된 봉래 3호선과 4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지금까지 봉래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선박의 형태와 구조가 중심이었으며(이원식 외 2006; 김성준 2007; 김성범 2009;

袁曉春 2011), 출수품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히 소개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봉래 3호선과 4호선 출수 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측 연구자들의 보고 및 상세한 연구를 기다려야하는 상태이다.

이상 11건의 고려 선박 발굴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발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보고서가 발간된 상태이지만, 각 선박별로 출수품의 수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모든 유물들을 세밀하게 검토 및 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봉래선과 같은 일부 선박들은 국외 발굴품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앞으로 이러한 고려 고선박들 출수품을 중심으로 한 선상의 일상 문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비교적 최근 출수되어 발굴 상황이 면밀히 비교적 면밀히 조사된 마도 1, 2, 3호선 출수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마도선들에 나타난 고려시대 13세기의 선상 일상생활 문화, 특히 주방 공간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문화 연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III. 태안 마도 인근 해역 출수 고려 후기 선박의 주방용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해역은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선 연안으로써, 복잡한 해안선과 해저의 암초, 밀물과 썰물 때의 빠른 조류로 인하여 일찍부터 선박의 난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지역이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89-91). 이 지역을 지나다니던 선박이 많은 것은 바로 인근의 안흥항(安興港) 덕분이다. 안흥항은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담당했던 유명한 항구이자, 동시에 고려 및 조선시대의 조운선이 지나던 주요 정박지였으며, 지금도 서해안의 중요한 기항지 중의 하나이다.[4] 마도를 비롯한 이

4) 현재의 안흥항은 고려시대의 조운선이 통과하던 안흥량(安興梁) 인근으로서, 송나라의 사신이 와서 묵던 객관 안흥정(安興亭) 및 안흥성(安興城) 유적 등이 인근에 남아 있다. 안흥항 일대의 역사와 유적에 대해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0b, 82-88); 윤용혁(20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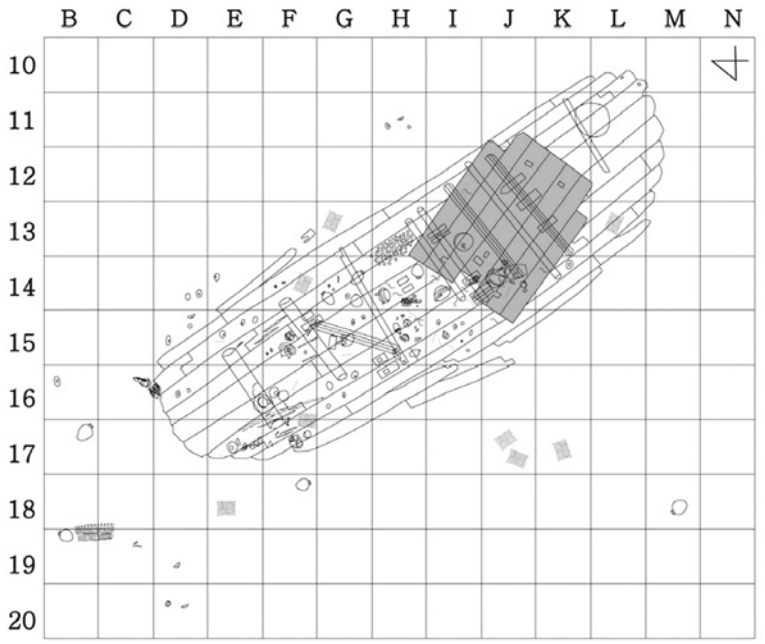
지역의 해저에는 일찍부터 여러 난파선 유적이 출수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인근 해저에서 발견된 수중 유물은 그 수와 종류가 매우 방대하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b; 2010b; 2010d; 2011a; 2011b; 2012c; 2012d).

2008년부터 작년까지 마도 인근 지역에서는 4척의 고려시대 난파선이 발굴되었는데, 그중에서 태안선은 조금 이른 12세기경에 난파된 선박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은 모두 13세기의 난파선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당시 수도 개경으로 항해하던 곡물 운송선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도자기 운반을 주목적으로 했다고 여겨지는 12세기의 태안선을 제외하고, 곡물 운송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도 1, 2, 3호선에서 출수된 주방용품들의 구체적인 예와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고찰하겠다. 물론 태안선에서도 마도 1-3호선과 유사한 구성의 선상 생활용품들이 확인되었는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b, 388-400), 태안선과 마도선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의 별도 연구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태안선은 마도 1-3호선보다는 난파 시기도 이르며, 주 운송품 또한 도자기였으므로, 곡물을 대량으로 선적했던 마도 1-3호선의 연구와는 별도로 비교 · 고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도 1, 2, 3호선은 모두 선박 내에 실려 있던 목간의 명문에 의해서 구체적인 난파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마도 1호선은 1208년경, 마도 2호선은 1219년 이전, 마도 3호선은 1265-1269년경 등으로 알려져 있다.[5] 즉 마도 1호선이 가장 먼저 난파된 선박이며, 이후 2호선과 3호선이 난파된 것이다. 이중에서 1호선과 2호선의 시기 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3호선의 난파

5) 마도 1-3호선에서 출수된 각종 목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박 난파 연도에 대한 기본적인 편년은 목간 분석에 의한 기존 연구를 참조한다.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목간 및 죽간은 총 73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물 꼬리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용도의 명문이 씌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도 1호선 출수 목간의 연대 분석은 임경희 외(2009)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0b, 346-417; 606-619) 참조. 마도 2호선에서 출수된 목간은 58점이며, 목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연대에 대해서는 임경희(2010)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1a, 264-309; 438-447) 참조.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목간은 총 35점으로, 구체적인 내용 및 분석에 대해서는 임경희(2011)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2c, 264-309) 참조.

〈그림 1〉 마도 1호선 선체 및 유물 매몰 평면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108)



시기는 몽골 침입기에 해당하는 비교적 늦은 시기로서, 이 선박들의 출수품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는 앞으로 고려시대 후기 생활 문화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고려시대 선박에서 출수되는 주요 주방용품은 선상의 식생활 문화와 관계된 것으로, 주방칸을 중심으로 발견된다. 선박 하부 중앙에 자리잡은 주방칸 시설은 대체로 불을 때기 위한 화덕이 설치된 흔적이 발견되며, 이와 함께 각종 주방용품들이 발견된다(그림 1, 6, 11). 물론 선박 내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형태의 공예품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주방칸 공간에서 일괄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선원들의 일상 식생활 문화를 위한 주방용품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방용품은 크게 조리용기, 저장용기, 식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조리용기로는 화덕시설과 함께 발견되는 철제솥과 도제 시루, 국자 등이 있다. 저장용기는 물, 젓갈, 곡식 등을 담기

위한 그릇들로서, 도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식기는 대체로 각종 그릇들과 숟가락, 젓가락 등인데, 금속제와 도자기제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마도 1호선과 2호선에 비해서 3호선에서 금속제품이 많이 발견된 점이 특징이다.

1. 마도 1호선 출수 주방용품

2008-2010년에 발굴 조사된 마도 1호선에서는 선박 중앙의 돛대가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상 생활용품, 특히 주방용품들이 확인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105). 선체 내의 매납 상태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대체로 그리드 H14, H15, I14, I15 부분을 중심으로 선내 주방 시설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선체 중앙 하부에서 주방용품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공간은 주방칸으로 추정되는 공간으로서, 이 근방에서는 돌과 석탄, 솔방울이 발견되어 선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58; 98; 107). 특히 이 주변에서는 석탄과 솔방울이 같이 흐트러진 상태로 나왔다고 하는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98), 솔방울은 아마도 석탄에 불을 지피기 위한 연소용 재료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석탄이나 목탄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대장간의 화덕에서 불을 땔 때에는 탄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잔 나뭇가지나 솔방울, 혹은 소나무 껍질 등을 이용하였다(주경미 2011, 66). 즉, 석탄과 솔방울이 함께 발견된 것은 석탄을 취사용으로 사용했던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불에 탄 돌과 석탄 부근을 중심으로, 조리용기, 저장용기, 식기가 다수 발굴되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선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예품들임이 확실하다. 주방칸 근처에서 발견된 주방용품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철제솥과 시루이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124-127). 식기는 금속기보다는 도자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 조리용기로는 철제솥 3점, 도제 시루 1점, 목제 국자 1점 등이

〈그림 2〉 철제솥. 높이 17.8cm. 마도 1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0b, 424) 소장.

〈그림 3〉 철제솥. 높이 19.1cm. 마도 1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0b, 424)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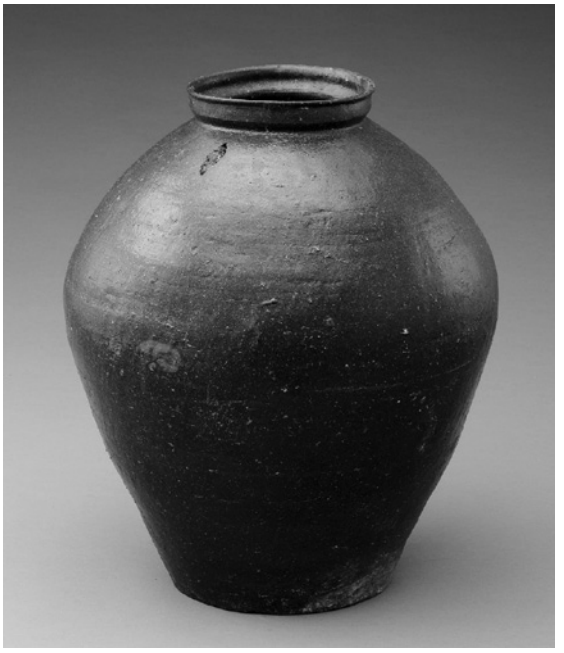
출수되었다. 철제솥 중 2점은 형태가 잘 남아있는 편이지만, 1점은 바닥부분만 남아있어서 형태를 알 수 없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424-425). 철제솥 중 1점은 전이 달리고 다리가 세 개 달린 전형적인 철정(鐵鼎) 형식의 솥인데, 다리는 현재 2개만 남아 있다(그림 2). 일반적으로 다리가 달린 철정 형식의 솥은 손잡이에 해당하는 전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고려시대 후기의 솥에는 전과 다리가 모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의 정(鼎) 기형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하나의 솥은 다리가 없는 일반적인 솥 형태인데, 철부(鐵釜) 형식이라고도 한다(그림 3). 이 솥은 다리가 없고 바닥 부분이 좁아지기는 하지만, 역시 손잡이 기능을 하거나 걸쳐 놓을 때 사용하는 전 부분이 그릇 어깨 부분에 있는 점은 앞의 철정 형식과 공통된 점이다. 한편 이러한 솥들은 뚜껑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출수품 중에서는 솥뚜껑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의 비교적 대형 솥은 바닥 부분만 남아 있어서, 정확한 형태를 알 수는 없다.

도제 시루는 연질 토기 계통으로, 완전히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던 것을 복원하였다. 손잡이는 두 개가 달렸으며, 몸체는 원통형에 가깝다(그림 4). 내부에서 음식을 찔 때 음식이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깔아 놓는 유기질의 깔개가 함께 나온 점이 독특하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284-285; 425). 이 깔개는 "시루밑 막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에 음식을 올려 놓고 찌는 데 사용하던 도구로 추정된다. 근현대기에는 시루밑을 막는 데에 삼베나 목면과 같은 천을 이용한 반면,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깔개는 대나무 뼈대에 초본류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 매우 고식이다. 직조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당시 배 안의 시루에서 실제로 음식을 쪄 먹었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매우 중요하다.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목제 국자는 손잡이 부분의 단면이 직각이며, 술부분은 작고 움푹하게 깎인 것으로, 거칠고 투박한 형태이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423). 그다지 많은 양의 음식이나 국물을 뜰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할 때에 음식을 휘젓거나 액체 양념을 넣거나 국물의 맛

〈그림 4〉 도제시루. 높이 27.9cm. 입지름 35.3cm. 마도 1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285) 소장.

〈그림 5〉 도기호. 높이 38.9cm. 입지름 14.4cm. 마도 1호선 출수. 내부에서 게젓갈 추정 유기물질 발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0b, 249) 소장.



을 볼 때에 사용했던 도구로 추정된다.

시루나 정의 존재로 볼 때, 당시 마도 1호선에서는 선상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마도 1호선의 경우에는 불을 피우기 위한 직접적인 화덕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선박의 중앙 하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석탄과 솔방울,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석제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돌 위에 석탄과 솔방울을 놓고 불을 피운 후, 그 위에 솥을 놓거나 시루를 솥 위에 걸어서 음식을 조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도 1호선에서 발견된 각종 저장용기로는 각종 도기(陶器)와 자기(磁器), 대나무용기 등이 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도기들은 음식이나 물을 저장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항해 중에는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해 담수(淡水)를 저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러한 담수 저장용 그릇으로는 도기호(陶器壺)를 흔히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높이 80cm에 이르는 대형 도제호는 선박 내의 담수 저장용기로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280; 한혜선 2012, 119). 고려시대 선박 내에서의 담수용기는 도제호나 도제병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마도 1호선에서는 도제호 34점, 도제병 2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어떠한 호가 담수용기인지, 혹은 다른 것을 담았는지는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는 어렵다.

마도 1호선에서는 드물게 도기 내부에서 새우젓과 게젓으로 추정되는 유기물, 혹은 곡물 등이 발견된 예들이 있는데(그림 5), 이렇게 젓갈이 담겨진 도기들은 대체로 선내 주방 시설로 추정되는 곳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58; 248-249). 물론 주방칸 이외의 공간에서도 이러한 젓갈류를 저장한 저장용기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저장용기와 함께 운송용 표찰인 목간이나 죽찰이 발견된 예도 있다. 즉 마도 1호선에서는 선원들의 일상용 식품과 함께 개성으로 운송하던 식품이 함께 선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도 1호선에서 저장용기로 추정되는 도기류는 20여점이 확인되었는데, 각 도기의 용량은 3-4리터, 혹은 18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

다고 한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597; 626). 이들 식품 저장용기와 목간 및 죽간, 출토위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식품들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방칸 출수품들 중 상당수는 선원들의 일상용 식품일 가능성이 크다. 주방칸의 식품 저장용 도기들 주변에서는 작은 접시와 볏짚 등이 발견되었고, 인근 지역에서는 생선뼈와 메밀, 깨 등으로 추정되는 곡물류, 대접, 솔방울, 석제품, 숟가락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저장용기들은 취사를 직접 행하던 곳 근처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방칸에서 발견된 새우젓갈과 게젓갈을 비롯한 각종 식품이 담긴 도기호는 실제 선원들의 일상용 식품을 저장한 것으로서, 당시 선원들의 식생활 문화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마도 1호선 주방칸 인근에서 발견된 식기로는 청동제 숟가락 13점, 대나무 젓가락 13점, 그리고 각종 도자기 접시와 대접 등이 있다. 마도 1호선에서는 청동 숟가락이 13점 발굴되었으나, 청동 젓가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목제 및 죽제 젓가락이 다수 발견되어, 당시 사람들이 식생활에서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418-423). 숟가락과 젓가락의 수 및 배의 크기로 볼 때, 이 배에는 적어도 10여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한 선원의 수와 현존하는 숟가락의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배를 운영하는 규모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숟가락의 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숟가락의 형식은 연미형(燕尾形)이 2점, 직선형이 10점으로, 연미형보다는 직선형이 중심이다. 즉, 이 배의 침몰 연대를 고려한다면 13세기 전반의 선박에서 선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숟가락은 연미형보다는 직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고려시대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 청동제 숟가락의 연구에서 연미형이 고려 중기에 가장 유행했다고 보던 견해(이난영 1975; 정의도 2007; 2010)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현상으로서 주목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분묘에서 금속제, 혹은 목죽제의 젓가락

이 출토된 예가 드물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은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제의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했다(정의도 2009; 2010). 그러나 13세기 전반에 침몰된 마도 1호선의 출수품을 통해서 당시의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연미형과 직선형의 청동제 숟가락이 공존했으며, 그중에서도 직선형의 숟가락이 더 널리 사용되었으며, 청동제 젓가락 대신 목제, 혹은 죽제의 젓가락이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마도 1호선 출수 숟가락과 젓가락 유품은 고려시대 전기, 혹은 중기 고분에서 젓가락이 출토되지 않았던 기존의 고고학적 성과물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청동제 숟가락 중에는 철제솥 안에서 발견된 예도 있기 때문에, 숟가락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식기 겸 조리용기의 기능을 함께 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마도 1호선에서는 수많은 도자기들이 발견되었으며, 주요 유물에 대한 연구가 이종민(2011)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도자기들의 용도에 대해서는 운송품 이외의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도자기 중에서도 특히 주방 시설로 추정되는 그리드 G14, H14, H15, I14, I15 등의 공간에서 발견된 소형 접시나 대접, 잔 등은 품질이나 배치 장소 등으로 볼 때, 선원들이 선내 식생활에서 직접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마도 1호선에서는 청동제 그릇이나 청동제 젓가락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선박에서는 금속제 식기가 그다지 이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잔이 담긴 대나무 바구니가 I13구역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b, 63), 일부 식기들은 대나무 용기에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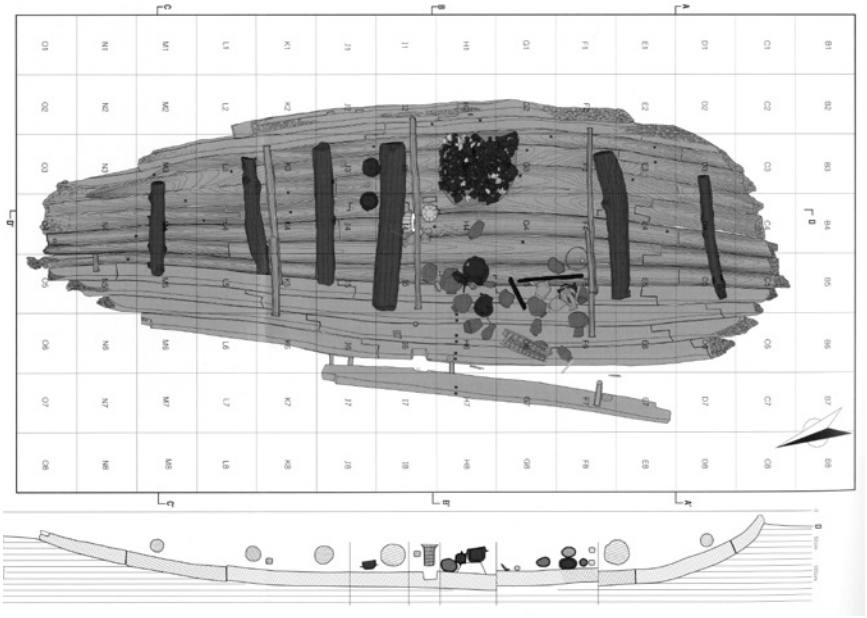
마도 1호선은 1208년경 전라남도에서 출항해서 개경으로 가던 곡물수송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배의 선창 하부 중앙에 마련된 주방칸을 중심으로 한 생활 유구의 확인은 고려시대 후기 선원들의 해상 일상 문화를 새롭게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마도 2호선 출수 주방용품

2010년 발굴조사된 마도 2호선에서도 역시 선박 중앙의 돛대를 중심으로 한 선체 하부 중앙 공간에서 주방칸 공간이 발견되었으며, 이 곳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각종 선상생활용품이 출토되었다(그림 6). 마도 2호선에서는 선체의 제 2칸이 취사를 행하던 선내 주방시설 공간일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H3 그리드를 중심으로, 취사를 위해 불을 피웠던 노지(爐址), 즉 화덕 유구가 돛대 구멍 옆 바닥면에서 확인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76; 87; 253-259). 이 노지는 선체 바닥면 구석에서는 점토를 깔고 그 위에 기와편과 도기편, 돌을 깔아서 만든 것으로, 기와편들은 불에 탄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선상에서 불을 피워 음식 조리를 하던 취사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인근 지역인 선체 하부 제 2칸에서는 각종 조리용품과 식기 등이 함께 발견되어, 당시 선상의 주방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아마도 발견된 상태로 볼 때, 제 2칸의 한쪽 구석에는 노지가, 반대쪽에는 각종 저장용품과 그릇을 두었던 선반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도 2호선에서도 마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조리용기, 저장용기, 식기가 다양하게 발견되었으며, 1호선에 비해 공반 유물들의 상태가 비교적 명확하여 다양한 주방 시설 공간의 구성용품들이 확인된다.

마도 2호선의 조리용기로는 역시 철제솥과 도제 시루가 발견되었으며, 마도 1호선과는 달리 맷돌도 발견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조리용기인 철솥은 솥뚜껑을 포함해서 모두 11점이 발견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317-322). 이중에서 8점이 솥이고, 3점은 뚜껑이다. 솥의 형식은 마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세발달린 철솥과 발 없는 철솥이 모두 발견되었는데, 모두 어깨 부분에 손잡이 기능을 하는 전이 달려 있다. 이 철제솥 중에서 2점은 도자기류가 함께 고착된 형태로 발견되어 도자기와 철제솥이 함께 주방 용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도 2호선에서는 철제솥이 선박 내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주방칸 구역에서 출토된 것은 삼

〈그림 6〉 마도 2호선 선내 유물 배치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88-89).



족기인 철정형식 2점과 다리가 없는 철부형식 1점 등 3점이다. 다른 솥들은 대부분 삼족기 형식으로 주방 공간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선내에서 직접 사용하던 주방용품이었는지, 혹은 운송품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운송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철제솥 뚜껑은 현대의 솥뚜껑과도 비슷한데, 중앙에 작고 짧은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손잡이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동심원이 음각선으로 장식된 점이 특징이다(그림 7). 솥과 뚜껑은 대부분 부식이 심하여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동심원 이외의 별다른 문양이나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중 하나의 솥에는 설거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솔이 붙어있었다고 한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87).

도제시루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주방칸 구역에서 출수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230). 높이 27cm 가량으로 입지름은 32.2~34.2cm 정도이며, 원통형에 가까운 몸체에 2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바닥에는 중앙의

〈그림 7〉 철제솥뚜껑. 높이 8.5cm. 지름 26.4cm. 마도 2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1a, 318) 소장.

〈그림 8〉 도기매병과 나무뚜껑. 뚜껑 높이 5.5cm. 매병 높이 29.5cm. 입지름 5.2~5.3cm. 마도 2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1a, 221) 소장.

투공 1개를 중심으로 5개의 투공이 반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돌아가며 배치되어 있어서 모두 6개의 투공을 가진 형식이다. 마도 1호선 출수품과 비슷한 형식으로, 역시 음식을 쪄먹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마도 2호선에서는 숫돌과 맷돌도 발견되어, 당시 선내에서 직접 칼을 갈거나 곡식을 분마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도 2호선에서도 마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도기와 자기, 대나무용기 등이 저장용기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역시 담수와 각종 식품은 도기에 저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도 2호선에서는 다양한 도제 저장용기가 발견되었는데, 높이 70센티 이상의 대형 호들은 담수를 저장하는 용기, 즉 물항아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중국 송나라의 서긍(徐兢)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물을 담는 용기, 즉 '수옹(水瓮)'은 도기로 만들고 섬들간에 배로 물을 실어 나를 때에 이 물항아리를 사용한다고 기록하였다. 서긍의 기록에 보이는 수옹은 마도선에서 종종 출수되는 다량의 대형 도기호들과 관련된 기형으로 추정된다(서긍 1977; 한혜선 2012a; 2012b).

마도 2호선에서는 꿀이나 참기름을 담은 질 좋은 청자 매병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208-211), 선원들은 이러한 식품을 도기에 저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무뚜껑이 덮힌 채로 발견된 도제 매병이나 도제호 등은 이러한 용도의 저장용기였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8). 마도 2호선에서는 나무로 만든 뚜껑이 3점 발견되었는데, 모두 주방칸 구역 인근에서 나왔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328-320). 아마도 이러한 뚜껑은 좀 더 흘리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식재료, 즉 꿀이나 기름과 같은 식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주방칸 구역에서 발견된 한 도기호의 내부에서는 생선 비늘이 발견되어, 생선젓갈류를 담았던 저장용기로 추정되고 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223). 즉, 마도 2호선의 선원들은 꿀, 기름, 생선젓갈 등의 식품들의 저장에 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목간과 같은 표찰이 달린 저장용기는

청자가 많으며, 이것들은 선원들의 일상용이라기보다는 중앙의 좀 더 신분 높은 관리들에게 보내지는 운송용 식품 저장용기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주방칸의 노지 인근인 H3 그리드에서는 조리도구들과 함께 사슴의 견갑골이 발견되었으며, 주방칸에서는 조금 떨어진 위치이긴 하지만 E6 그리드에서는 농어, 참돔, 사슴의 요추뼈와 돼지의 요골이 함께 발견되었고, 선체 하부의 J9 그리드에서는 오리뼈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선박의 바깥쪽에 해당하는 G8 그리드에서는 숭어, 가오리, 민어, 넙치, 돔발상어, 참돔, 사슴, 돼지, 개의 뼈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360-361). 아마도 선박과 그 인근에서 발견된 다양한 동물뼈들은 당시 선박 내에서 식품으로 섭취된 음식물의 재료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선박 내에 다양한 동물성 식품들을 선적했음을 알 수 있다. 주방칸 노지 인근에서 발견된 사슴뼈와 트렌치에서 발견된 돼지의 경추뼈를 담아 놓은 도자기의 존재는 당시 사슴과 돼지가 주요 선상 식품으로 섭취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동물성 식품들의 재료는 어떠한 상태로 보관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오리의 경우에는 2-3개체분의 뼈가 일괄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살아 있는 상태로 선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돼지뼈나 물고기뼈의 경우에는 도자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예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역시 도자기를 고기의 저장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방칸 인근에서는 다리가 달린 대바구니와 다리가 없는 둥근 대바구니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333-334), 이들도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들을 보관하던 저장용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도 2호선의 식기류로는 청동제 숟가락, 대나무 및 나무제 젓가락, 청동제 접시와 대접, 그리고 청자 접시와 대접, 잔, 목제 칠기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동제 숟가락은 선체 여기 저기에서 산일되어 발견되었는데, 모두 8점이 발견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310-311). 손잡이 끝부분은 연미형과 능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역시 연미형보다는 능형이 많다. 마도 1호선

〈그림 9〉 대나무 젓가락 일괄. 길이 최대 27cm. 마도 2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332) 소장.

〈그림 10〉 목제 잔받침. 높이 약 3.5cm. 최대지름 14cm. 마도 2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1a, 326) 소장.

과 마찬가지로 마도 2호선에서도 청동제 젓가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젓가락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나무 젓가락은 완형으로 출수된 것이 18점으로 9인분 정도에 해당한다(그림 9). 끝부분이 일자형인 형식과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든 형식 등이 있다. 나무 젓가락은 나무의 수피를 제거하고 만든 것으로, 모두 부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현재

복원된 것은 7점이다. 복원되지 않고 부러진 상태로 발견된 예도 많기 때문에, 전체 수량은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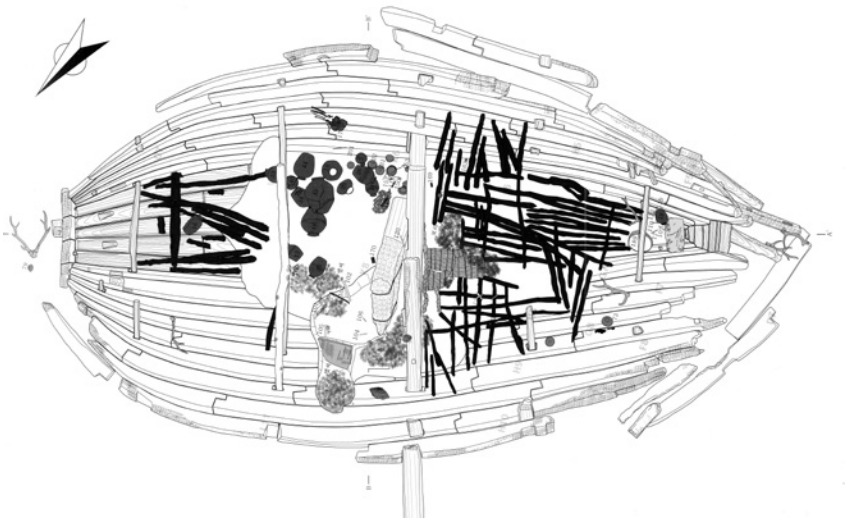
청동제 및 청자 그릇류는 주방칸 구역을 중심으로 발견된 것에 한정하여 선원용 식기로 추정할 수 있다. 출수된 상태로 볼 때, 이 배에서는 금속기와 도자기, 목기가 모두 식기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아직까지 금속기의 수량은 많지 않으므로, 13세기 전반까지의 선상에서는 금속기가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도 2호선에서 출수된 금속기는 모두 4점으로, 접시 1점, 대접 2점, 굽편 1점 등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주방칸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수는 훨씬 많은데, 접시와 잔, 대접 등이 주요 기형이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313-314; 87). 마도 2호선에서 발견된 총 203점의 도자기 중에서 청자는 157점이며, 일부는 개성으로 보내지는 운송품이다. 그러나 주방칸에서 발견된 청자 반구장경병이나 도기 매병 등은 선원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개성 운송품에 비해서 청자의 질이 다소 거칠고 떨어진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a, 158).

주방칸 인근에서는 나무로 만들고 옻칠을 한 작은 잔받침 한 점 발견되었는데(그림 10), 굽의 바닥부분이 마모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용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잔받침은 잔을 올려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삼국시대 이후부터 종종 보이는 독특한 형식의 그릇이다. 목제 그릇은 이러한 잔받침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출수된 유물은 매우 드문 편이다. 아마도 목기는 금속기나 도자기에 비해 가볍고 물속에서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없어져버린 것이 많아서 출수 유물의 예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3. 마도 3호선 출수 주방용품

마도 3호선은 2011년에 선체 내부 유물들이 발굴되었으며, 선체는 아직 미인양 상태이다. 여기에서도 매우 다양한 선상 생활 유물들이 출수되었으

〈그림 11〉 마도 3호선 선내 유물 배치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c, 80).



며, 특히 다른 배들에 비해서 금속기의 출수양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마도 3호선도 역시 다른 고려 선박들과 마찬가지로 중앙 돛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박의 중앙하부에 선원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동시에 적재공간이 되는 주방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배는 선체 하부 공간이 총 6칸으로 구성되었는데, 선상 생활공간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의 제 3칸이다(그림 11). 이 곳에서는 좌현 바닥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30cm 가량의 판석형 할석과 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취사를 위한 노지, 즉 화덕 유구로 확인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c, 86). 반대쪽 우현에서는 각종 식기와 철제솥 등이 발견되었으며, 그 위쪽으로 젓갈을 담은 도기호와 식기류가 놓여져 있었다. 역시 1, 2호선과 마찬가지로 주방칸 공간에서는 다양한 조리용기, 저장용기, 식기가 함께 뒤섞인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은 선상의 주방칸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일괄 주방용품으로 볼 수 있다. 마도 3호선에서는 청동제 식기류가 60여점 발견되어 청동기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마도 3호선의 조리용기는 화덕 인근에서 발견된 철제솥 2점과 청동제 국

〈그림 12〉 청동제국자. 길이 24㎝, 술부 폭 11.5㎝. 마도 3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c, 291) 소장.

자 1점이 있다. 다른 배들과는 달리 마도 3호선에서는 시루가 발견되지 않았다. 철제솥 한 점은 어깨에 전이 달리고 다리가 3개 달린 철정 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파손이 심해서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파손이 심한 솥은 솥뚜껑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어깨 부분의 전 형태가 일부 확인된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c, 264-265). 철정 형식의 솥은 다른 배에서 발견된 솥들과 비슷한 형태이다.

청동제 국자는 시굴 트렌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존 상태는 좋지 못하지만(그림 12), 마도 1호선에서 발견된 나무 국자에 비해서 국자의 형태가 확실하다. 마도 2호선에서는 국자에 해당하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청동제 국자는 절대 편년이 가능한 유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마도 3호선 출수품은 13세기 후반의 절대 편년이 가능한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

마도 3호선의 저장용기는 대체로 제 3칸 우현에서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도기이다. 마도 1호선이나 2호선과 마찬가지로 담수를 저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형 도기호들도 여러 점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장류(醬類) 및 다양한 생선 젓갈류, 곡물류 등을 보관했던 도기호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마도

2호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든 도기호의 뚜껑도 확인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c, 132-135; 138-139; 152; 154-156; 162-163; 168; 184-187; 303-313). 마도 2호선의 나무뚜껑에 비해서 마도 3호선의 뚜껑들은 넓적한 원형이 많으며, 밀봉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예들도 있다. 아마도 이러한 뚜껑이 덮힌 도기호들은 꿀이나 기름과 같은 액체 뿐만아니라 젓갈이나 장류를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마도 3호선에서는 목간에 어유(魚油), 즉 물고기 기름을 운송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6] 이러한 물고기 기름을 저장할 때에도 이러한 나무 마개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용기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역시 생선뼈를 비롯한 유기물질이 발견되어 생선 젓갈을 담았던 저장용기로 추정되는 여러 도기호이다. 마도 3호선에서는 이러한 생선 젓갈류의 존재가 도기호 안에서 실제로 확인되었을 뿐만아니라, 역시 함께 선체에서 발굴된 여러 목간 및 죽찰의 기록을 통해서 다양한 해산물들과 젓갈류와 같은 저장음식들이 전라도에서 당시 수도인 개경으로 운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c, 154-155; 161-163; 239; 250; 252; 254). 목간에 기록된 운송 젓갈류로는 '생포해(生鮑醢)', 즉 전복젓갈과 '담해(蚶醢)', 즉 홍합젓갈 등이 있으므로, 전복이나 홍합으로 담근 젓갈이 귀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서긍의 『고려도경』에 의하면, 당시 고려인들은 각종 해산물들을 귀천없이 잘 먹었는데, 냄새가 나고 비리고 맛이 짜서 오래되면 싫어졌다고 한다(서긍 1977, 139). 아마도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전라도 지방의 해산물 및 젓갈류와 같은 저장음식들은 이미 12세기경부터 선박을 통해서 중부지방의 수도까지 지속적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마도 3호선 주방칸에서 발견된 각종 젓갈류의 저장 음식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당시 배에 탔던 선원들 뿐만

6) 물고기 기름의 물목이 적힌 목간은 마도 3호선에서 모두 4점이 발견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c, 230).

〈그림 13〉 각종 청동제 식기류. 마도 3호선 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12c, 266) 소장.

아니라 개경이나 강화도의 귀족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자료로서, 당시 전라도 지방의 음식 문화가 선박과 해양을 통해서 중앙 지역으로 전해지는 일상 문화 교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주방칸은 아니지만 제 5칸 M8 그리드에서는 생선뼈들이 들어있는 대나무제 방형 바구니가 출수되어, 생선의 보관용으로 대나무 바구니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생선뼈는 곱상어와 상어과 동물, 조기류의 뼈로서, 여러 마리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c, 314; 352). 출수 목간 중에는 상어를 담은 상자가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7] 아마도 이렇게 상어를 담았던 상자는 대나무 바구니를 이용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제 2칸에서는 식물을 이용해서 짠 망태와 대나무로 짠 소쿠리 등이 발견되었는데(국립문화재연구소 2012c, 315), 이들은 식재료 보관뿐만 아니라 그릇의 보관 및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저장용기

7) "沙魚盛箱子一"라는 묵서명이 쓰여진 죽찰은 F6 그리드에서 출수되었는데,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c, 245).

로 보인다. 이중에서 대나무제 소쿠리는 구연부의 형태가 훼손되어 마무리 방식은 알 수 없지만, 형태와 직조 방식이 현대의 전라도 산 죽세공품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

마도 3호선에서 사용된 식기는 반세기 정도 빨리 출항했던 마도 1, 2호선에 비해 금속제품이 월등하게 많아진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청동제 그릇이 수십점 발견되어, 주요 식기가 금속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3).

청동제 숟가락은 모두 9점이 발견되었다. 마도 1, 2호선과는 달리 연미형이 가장 많고, 능형과 직선형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숟가락의 형식이 변화되는 것은 이 배의 침몰 연대가 조금 늦은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기에서는 나무 및 대나무제 젓가락 뿐만아니라 청동제 젓가락 두 쌍이 출수되었다. 청동제 젓가락은 모두 자루부의 단면이 육각형이다. 나무제 젓가락은 4점, 대나무제 젓가락은 3점 등 발견되어 총 8쌍 이상의 젓가락이 확인된다. 즉 청동제 숟가락 9점, 각종 젓가락 8쌍 이상이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c, 280-287; 300-302). 마도 3호선에서 확인된 청동제 젓가락은 13세기 중반경에 목죽제 젓가락과 청동제 젓가락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제까지 학계에서는 고려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속공예품 중에는 젓가락의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의도(2007, 121-122)는 조선초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젓가락이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이미 13세기 초반에 침몰된 마도 1호선, 2호선 및 마도 3호선에서는 목죽제 젓가락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마도 3호선의 경우에는 청동제 젓가락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13세기 경에는 선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나무나 대나무제 젓가락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도 3호선 출수 청동제 젓가락들은 한쪽 끝이 닳은 사용흔이 확인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임이 확인된다. 이것은 이제까지 고분 출토품만을 중심으로 연구해온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는 중요한 자료이다.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청동제 그릇은 대접과 접시, 그릇 뚜껑 등으로 나

〈그림 14〉 마도 3호선 청동기 및 도자기 출수 상황(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c, 266).

뉘는데, 대접의 형식은 다양하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청동제 그릇을 43점으로 기술했지만(국립문화재연구소 2012c, 266), 여러 개가 겹쳐진 상태로 발견되거나 부식되어 형태를 알 수 없는 예들도 있으므로, 배에서 사용했던 청동제 그릇은 40여점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이 청동제 그릇들은 그동안 절대편년 자료가 부족했던 13세기 고려시대 금속기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절대연대 자료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금속기들은 대부분 고분에서 출토된 부장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려 금속기의 실용성보다는 부장용 의례용기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구자경 2011; 정의도 2007; 2009; 2010). 그러나 마도 3호선 출수품과 같이 금속제 식기류가 선내 주방 공간에서 일괄품으로 발견됨으로써, 고분 출토 금속기들과 유사한 형식의 금속제 식기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선내에서 사용된 식기류의 형식적 특징들은 고분 출토품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과 기존 고분 출토 금속기들과의 비교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마도 3호선에서는 이러한 금속제 그릇들이 청자를 비롯한 각종 도

자기제 그릇들과 겹쳐지거나, 함께 놓여진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그림 14), 그릇을 포개어 보관하는 방식이나 재질이 다른 식기를 함께 사용하던 당시의 생생한 식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 금속기들과 함께 발견된 도자기들은 대부분 청자 대접과 접시, 잔이므로, 당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도제 식기류는 대접과 접시였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금속 및 도제 식기류에 대한 출수 위치별 공반관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13세기 후반 선상의 주방용품 일괄과 주방칸 공간의 복원이 어느 정도 심도깊게 가능해질 것이다.

IV. 마도 난파선 출수 주방용품의 문화사적 의의

마도 1, 2, 3호선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선박의 주요 주방용품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크게 조리용기, 저장용기, 식기 등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조리와 관련된 주방칸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유구는 바로 음식 조리를 위해서 불을 때는 화덕시설이다. 화덕은 그릇 종류나 공예품은 아니지만, 목선 내에서의 취사 방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그 외 주요 조리 용기로는 철제솥, 도제 시루, 국자 등이 확인되었다. 저장용기는 물, 젓갈, 곡식 등을 담기 위한 그릇들로서, 음식물의 저장에는 도기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생선이나 고기의 저장에는 목제, 혹은 죽제 용기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기는 각종 그릇들과 숟가락, 젓가락 등인데, 금속제와 도자기제, 목죽초제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마도 1, 2, 3호선 출수 주방용품들은 각 선박별로 구체적인 출수 양상이나 공예품의 재질 및 형태, 그릇의 구성 방식 및 사용 방식 등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마도 1, 2, 3호선에서 출수된 각종 주방용품 및 주방 생활 공간의 확인은 고려시대 해상 문화 교류 및 일상 문화 연구에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표 2〉 마도 1~3호선 출수 주요 주방용품

종류			마도 1호선 (1208)	마도 2호선 (1219년 이전)	마도 3호선 (1269년 이전)
1	조리용기	화덕시설	석탄과 솔방울, 석제품	점토 · 기와편 · 도기편 · 돌로 만든 노지.	판석형 할석과 돌로 만든 노지.
		철제솥	철정형과 철부형 총 3점.	철정형과 철부형, 솥뚜껑 등 총 11점	철정형 및 기타 철제솥 파편 총 2점.
		도제시루	1점(시루밑 공반).	1점.	X
		국자	목제 1점	X	청동제 1점
		기타		맷돌, 숫돌	
2	저장용기	도자기	담수 저장용 도기호 및 도제병. 새우젓과 게젓 저장용 도기. 곡물 저장용 도기. 기타 도기호 및 병.	담수 저장용 도기. 생선젓갈 저장용 도기. 나무뚜껑이 있는 도제 매병과 도제 편호(참기름과 꿀?). 참기름과 꿀을 담은 청자 매병. 돼지 경추뼈가 든 도기.	담수 저장용 도기. 장류, 다양한 생선 젓갈 및 곡물류 보관용 도기. 나무뚜껑이 있는 도기호(기름이나 꿀?).
		대나무 용기	잔이 담긴 대나무바구니.	다리가 달린 대바구니.	생선 보관용 대나무 바구니. 망태.
		기타	생선뼈, 메밀, 깨 등.	각종 동물 및 어류 뼈, 곡류	각종 동물 및 어류 뼈, 곡류
3	식기	청동제숟가락	13점	8점	9점
		목죽제젓가락	죽제 13점	죽제 18점, 목제 7점	죽제 3점, 목제 4점,
		청동제젓가락	X	X	2쌍(4점)
		청동제그릇	X	청동제 접시와 대접.	청동제 접시와 대접 수십개체분.
		도자기	접시, 대접, 잔	접시와 대접, 잔	접시와 대접, 잔

이들은 기존의 고고학이나 미술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형식학적 연구 방법론에 의한 연구 성과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절대 편년 가능 자료이자 개별 공예품의 직접적 용도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새로운 자료들로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중요한 물질문화적 자료로 알려진 청자와 금속공예품, 목칠기 등의 공예품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절대 편년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심도깊은 연구는 어려웠던 분야이다. 그러나 마도 난파선은 선박의 침몰연대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공반 유물을 통해서 구체적인 용도가 확인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수된 각종 공예품

들은 고려시대 후기 물질 문화 연구의 새로운 절대 편년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마도의 세 난파선은 모두 전형적인 고려 후기의 선박 구조를 보여주는 배들로서,[8] 모두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중앙으로 항해하던 선박으로 추정되고 있다. 곡물류를 대량으로 적재한 것으로 보아, 세 선박 모두 곡물 운송선, 혹은 조운선(漕運船)으로 추정되고 있다.[9] 또한 앞 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세 난파선은 모두 선박 내에서 다량의 목간이 발견되어 난파 연대와 출항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즉 이 세 척의 난파선은 각각 1208년, 1219년, 1269년 이전이라는 난파 시기라는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고려시대의 타임캡슐이다. 이들을 통해서 한반도 남부 해안 지역과 고려시대의 중앙인 개성, 혹은 강화도 지역과의 문화 교류가 당시 선박과 연안 항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즉 이 세 난파선은 선박을 통한 해양 문화 교류 양상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이다. 목간 분석에 의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마도 1호선의 출항지는 전라남도, 마도 2호선은 전라북도, 마도 3호선은 전라남도 여수 인근으로 추정된다.

세 선박은 모두 중앙 돛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체 중앙 하부의 일정한 구획 내에서 선내 취사를 위해 불을 피우는 화덕을 비롯한 주방 시설과 식기 및 저장용품이 구비된 주방용품이 발견된 것이 공통된 선내 구조이다. 특히 2호선과 3호선에서는 선상의 일상생활 문화 중에서 식생활 문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주방칸이 노지를 중심으로 하는 화덕 유구와 함께

8) 국내 해저 출수 고선박의 형태 복원은 신안선의 복원이후(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b) 꾸준히 다각도에서 복원 검증되고 있다. 일부 고려 난파선 중에는 발굴 결과를 토대로 실제 복원선이 제작 및 운행되기도 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c; 2012a; 2012b).

9) 이 선박들은 모두 전라도 지역에서 당시 수도인 개성, 혹은 강화도로 곡물 및 기타 화물을 운송하던 운송선이다. 주요 화물이 곡물이므로, 이 세 선박을 모두 조세를 운반하던 조운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각 선박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고려시대의 조운 및 연안항로에 대해서는 곽호제(200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09c; 2010c; 2012b), 문경호(2010; 2011a; 2011b), 윤용혁(1991; 2010), 한정훈(2009; 2010; 2011; 2012) 참조.

비교적 보존이 잘 된 상태로 확인됨으로써, 이 구간의 일괄 유물을 중심으로 당시 선상의 주방과 식생활 문화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복원될 수 있다. 화덕의 형태와 구조, 불 피우는 방식은 선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선체 중앙 하부 한쪽 구석에 화덕을 만들고 반대쪽 공간에는 각종 조리용기, 저장용기, 식기들을 배치하여 적재했던 선내 구조는 공통적으로 확인된다.[10] 마도 1호선은 석탄과 솔방울을 이용하여 불을 피웠던 것으로 추정되며, 마도 2호선은 기와와 돌을 이용한 화덕을 마련해 놓았으며, 마도 3호선은 할석을 이용한 화덕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덕에서 사용하는 주요 조리용기는 세 선박 모두 철제솥이었다. 마도 1호선과 2호선에서는 도제 시루도 함께 사용했으나, 마도 3호선에서는 시루가 발견되지 않았다. 철제솥은 대부분 세발달린 솥, 즉 철정 형식이 가장 많으며, 다리가 없는 철부 형식도 있다. 이러한 철제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2세기의 중국 사신인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기록한 "죽부(鬻釜)"라는 기명이다. 이것은 당시 고려에서 사용하던 조리 용기의 일종으로서, 서긍은 죽부가 죽을 끓이고 음식을 삶아서 익히는 세발달린 철솥이며, 동심원 무늬가 있는 뚜껑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서긍 1977, 183). 아마도 마도 1, 2, 3호선에서 모두 출수된 세발달린 철솥은 이러한 죽부에 해당하는 조리용리고 추정된다.

또한 서긍은 물을 담는 항아리, 즉 "수옹(水瓮)"이라는 것이 도기로 제작되었으며, 섬들 간에 배로 물을 실어 나를 때 이 물항아리를 사용한다고 기록했는데(서긍 1977, 184), 아마도 마도 난파선에서 출토되는 대형의 도기호들은 이러한 수옹에 해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즉 12세기 서긍의 기록에서 보이는 여러 일상용 기명들은 13세기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형태나

10) 2009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배 위쪽에서 불을 피워 선원들이 취사하는 〈선상생활 상상도〉를 제작한 바 있는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102), 마도 1, 2, 3호선의 발굴 결과를 보면 이러한 선상 생활 상상 복원도는 선내 하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다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선체 하부 공간에서의 생활에 대한 복원 추정도는 추후 마도 3호선의 선체 발굴 이후에 좀 더 심도깊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기능의 큰 변화 없이 선박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취사 공간을 중심으로 한 주방칸에서는 선상에서 선원들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저장용품과 식품 및 식재료들이 확인되어 고려시대의 일상생활 문화, 특히 식생활 문화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꿀, 참기름, 각종 젓갈류 및 해산물류 등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운송되고 있었으며, 각종 젓갈류와 장류, 기름 등과 같은 음식들은 배의 선원들도 직접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운송품과 선원의 일상용 음식과의 공통성이 일부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선원들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젓갈류의 존재 및 목간에 기록된 해산물류의 공통성은 전라도 지역의 음식 문화가 고려시대 후기에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에 일찍부터 전해졌으며, 이러한 일상생활 문화의 교류가 바다를 따라 운행하던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식기는 도자기와 금속기, 목기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특히 몽골 침입기에 해당하는 마도 3호선에서 금속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마도 1호선과 2호선에서는 금속제 젓가락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금속제 그릇의 사용도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세기 정도 늦은 마도 3호선에서는 다량의 금속제 그릇들과 2쌍의 금속제 젓가락이 사용되었으므로, 13세기 중반 이후의 고려 사회에서 금속제 식기가 선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될 만큼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1231년 몽골의 침입 이후 고려시대의 금속공예는 쇠퇴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였으며(이난영 1992; 구자경 2011), 실제로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속공예품들은 13세기 이후의 예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마도 해역의 난파선에서 확인된 현상은 오히려 13세기 중반 이후에 일상용 금속공예품의 사용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금속공예 및 금속 유통, 경제사적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마도 2호선, 3호선에서 출수된 금속제 식기들은 절대 편년과 실제 사용이 확인되는 중요한 고려시대 후기의 일상용 공예품으로서, 이제까지 무덤

부장품, 혹은 사찰용 의례용품으로만 논의되던 고려 금속공예의 연구를 재고할 새로운 자료가 된다. 특히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일부 금속제 식기 중에는 수선해서 재사용했던 흔적도 보이며, 금속제 젓가락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흔도 확인된다. 즉, 이들은 선원들이라는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금속공예품으로서, 이제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금속공예품들보다 직접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러한 해양 출수 금속제 그릇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당시 일상용 금속공예의 성격 규명 및 식생활 문화 연구, 금속 유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연구 등이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제까지 육지에서 발굴 조사된 고려시대의 유적 중에서는 당시의 일상생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들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문헌기록을 중심으로만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예품의 출토지역이 대부분 고분이나 사찰지이기 때문에, 일상용 공예품이 출토된다고 하더라고 기존 연구자들은 매장지의 특수 성격을 반영한 의례용품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 마도 난파선에서 확인되는 일상생활용품들의 존재는 이러한 특수 매장지에서 출토되는 것과 대부분 유사한 형식이다. 즉, 그릇이나 숟가락과 같은 일상생활용 공예품들은 특수 매장지나 선상의 일상생활에서나 유사한 형식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통된 공예품 형식의 존재는 기존 고고학이나 미술사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기존 미술사나 고고학적 연구에서는 숟가락이나 그릇의 형식이 유물의 편년과 밀접하며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마도 출수 유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한 배에서 함께 발견되거나, 하나의 형식이 여러 배에서 꾸준히 지속되는 양상이 모두 발견되었으며, 연미형의 숟가락을 잘라서 능형으로 바꾸어 사용했던

예도 확인되고 있다. 마도 출수 주방용품들의 연구는 침몰 연대가 추정되어 유물의 절대 연대가 어느정도 추정 가능한 해저 출수 유물들과 기존의 편년 추정이 어려웠던 지상 출토 유물들과의 비교 연구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고고학과 미술사학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던 형식학적 방법론과 기존 편년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가지 형식의 공존, 혹은 존속이라는 공반 유물간의 상관 관계를 인식하고, 이러한 형식학적 관점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인류학적, 혹은 민속학적 방법론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함께 사용하여 각 공예품들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 및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고고학이나 미술사학에서 발전시켜온 형식학이나 양식학에 대한 논의는 절대 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유물들이나 유적의 연구에 여전히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기는 하다. 또한 마도 출수품에 대한 분류학적 관점에서의 유물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도 많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분류된 유물들에 대한 해석이나 편년 및 기존의 양식론에 의해서 편년되었던 기존 고려시대 공예품들과의 상관 관계 연구에서는 구체적 편년 자료가 되는 마도 출수품이 중요한 기준작들로서 중요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 비교 연구를 통해서 고려 공예품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해석과 이해 및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V. 맺음말

최근 국내 연안 해저에서 발굴된 태안 마도 1, 2, 3호선은 고려시대 13세기의 다양한 일상생활 문화와 해양을 통한 문화 교류 양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마도 1, 2, 3호선에서 출수된 주방용품과 주방칸 공간의 구성 등을 중심으로 고려 후기 13세기의 선상 문화 생활의 실제와 의의를 간단하게 고찰하였다. 방대한 물질문화 자료들이 출수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마도 난파선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편이며, 보고서 수록품 이외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선박 하부 중앙에 마련된 주방칸과 그 주변에서 발견된 일상생활용 공예품, 즉 주방용품들의 다양한 성격들을 살펴 보았지만, 개별적인 유물들의 밀도 있는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고려시대의 선원들은 난파선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선박 내에서 직접 불을 피워서 취사 행위를 했으며, 다양한 젓갈류를 비롯한 저장식품을 비롯한 음식들을 섭취하였다. 당시 선원들의 선상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이 난파선들 안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에게 새롭게 소개되는 것은 현대 수중고고학의 성과이다. 이러한 수중고고학적 성과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새롭게 보기와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새롭게 검토하기는 앞으로 역사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선박의 일상생활 문화 중 식생활 문화는 선박 내의 특수 공간 뿐만 아니라 육지의 일상생활과도 관련된 것이다. 특히 젓갈류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지역의 식생활 문화는 선박의 운항과 함께 일찍부터 중앙인 개경 지역으로 꾸준히 전래되었음이 발굴 유물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또한 선박 내 조리용기나 식기는 육지 출토품들과도 공통된 양식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다. 이러한 해상과 육지의 일상생활 문화의 교류 양상은 앞으로 출수 유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박 내 주방 공간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인 복원과 각 선박별 공반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최근 수중고고학의 발달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는 고려 시대 뿐만아니라 다양한 시대, 다양한 국적의 난파선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 해저 출수 문화유산들은 기존의 육지와 육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연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서, 이들을 통해서 문헌기록보다 더 생생한 생활문화사의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수중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에 대해

서 좀 더 다양한 학계의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와 연구를 진행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생생한 역사학을 고증 및 복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고에서 고찰한 마도 난파선 출수 주방용품도 고려시대 후기 생활문화의 다양한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자료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고려시대 문화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이해가 좀더 실제적이고 입체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미진한 글을 마친다.

[투 고 일 : 2013년06월30일]
[심사완료일 : 2013년07월22일]
[게재확정일 : 2013년08월06일]

참고문헌

경기도자박물관 (Gyeonggi Ceramic Museum)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0.『서해바다속의 고려청자』(Seohae Badasok-ui Goryeo Cheongja). 경기도 광주 (Gwangju, Gyeonggi-do): 경기도자박물관 (Gyeonggi Ceramic Museum).

곽호제 (Gwak, Ho-je). 2009.“고려~조선시대 泰安半島 漕運의 실태와 運河掘鑿.”(Korea~Joseonsidae Taeanbando Joun-ui Siltae-wa Unhagulchak)『지방사와 지방문화』(Jibangsa-wa Jibang Munhwa) 12-1: 301-325.

구자경 (Ku, Ja-gyeong). 2011.“고려후기-조선전기 영남지역 분묘 출토 靑銅碗의 연구.”(Goryeohugi-Joseonjeongi Yeongnamjiyeok Bunmyo Chulto Cheongdongwan-ui Yeongu)『문물』(Munmul) 1: 95-129.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1977.『新安海底遺物』(Sinan Haejeo Yumul). 서울 (Seoul): 三和出版社 (Samhwa Chulpansa).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2012.『천하제일 비색청자』(Cheonha Jeil Bisaek Cheongja). 서울 (Seoul):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09a.『고려청자 보물선과 강진』(Goryeocheongja Bomulseon-gwa Gangjin).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09b.『高麗靑磁 寶物船 -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Goryeocheongja Bomulseon - Taean Daeseom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09c.『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Goryeo Baekkil-lo Segeumeul Geotta).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0a.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Badassok Yumul, Bicheul Boda).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0b.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Taeanmado 1hoseon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0c. 『고려시대 청자운반선 - 전통선박 조선기술 II』(Goryeo Sidae Cheongja Unban seon - Jeontong Seonbak Joseon Gisul II).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0d. 『800년 전의 타임캡슐 - 특별전 마도 수중문화재 발굴성과』(800nyeonjeon-ui Taim Caepsyul - Teukbyeoljeon Mado Sujung Munhwajae Balgul Seonggwa).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1a.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Taean Mado 2hoseon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1b. 『태안마도해역 탐사보고서』(Taean Mado Haeyeok Tam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2a.

『달리도선 보존 · 복원 보고서』(Dallidoseon Bojon · Bokwon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2b. 『조운선(漕運船) - 전통선박 조선기술 IV』(Jounseon - Jeontong Seonbak Joseon Gisul IV).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2c. 『태안마도 3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Taean Mado 3hoseon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2d. 『태안원안 해수욕장 수중발굴조사 보고서』(Taean Wonan Haesuyokjang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1999. 『발굴조사 목포 달리도 배』(Balgul Josa Mokpo Dallidobae).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 목포시 (Mokposi).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3.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Muan Doripo Haejeo Yujeok).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4a. 『2004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도자길 · 바닷길』(2004 Gaegwan 10junyeon Ginyeom Teukbyeoljeon Dojagil · Badagil). 목포 (Mokpo): 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4b. 『新安船 保存 · 復元 報告書』(Sinanseon Bojon · Bokwon Bogoseo). 목포 (Mokpo): 해양유물전시관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4c.『群山 飛雁島 海底遺蹟』(Gunsan Biando Haejeo Yujeok).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 전라북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5.『群山 十二東波島 海底遺蹟』(Gunsan Sibidongpado Haejeo Yujeok).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6a.『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14segi Asia-ui Haesang Gyoyeok-gwa Sinan Haejeo Yumul).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Sinanseon Balgul 30junyeon Ginyeom Gukje Haksul Daehoe).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6b.『新安船과 동아시아 陶瓷交易』(Sinanseon-gwa Dongasia Doja Goyeok).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6c.『新安船』전 3권 (『Sinanseon』 Jeon 3gwon).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6d.『安佐船 發掘報告書』(Anjwaseon Balgul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 신안군 (Sinangu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7a.『群山 夜味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Gunsan Yamido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 군산시 (Gunsansi).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7b.『保寧 元山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Boryeong Wonsando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7c.『신안선 속의 금속공

예』(Sinanseon Sok-ui Geumsok Gongye). 목포 (Mokpo):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7d.『신안선 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Sinanseon Chulto Geumsok Yumul-gwa 14segi Dongasia-ui Geumsok Gongye). 2007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7 Gukje Haksul Daehoe Jaryojip).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8a.『고려청자 보물선 : 강진, 태안 그리고…』(Goryeocheongja Bomulseon: Gangjin, Taean Geurigo…).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8b.『群山 夜味島 II 水中發掘調査 報告書』(Gunsan Yamido II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8c.『安山 大阜島船 水中發掘調査 報告書』(Ansan Daebudoseon Sujung Balgul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2009.『群山 夜味島 III 水中發掘調査 · 海洋文化調査 報告書』(Gunsan Yamido III Sujung Balgul Josa · Haeyang Munhwa Josa Bogoseo). 목포 (Mokpo): 국립해양유물전시관 (Gungnib Haeyang Yumul Jeonsigwan).

김병근 (Kim, Byeong-geun). 2010.“수중발굴 고려선박 구조와 시대구분 고찰.”(Sujung Balgul Goryeo Seonbak Gujo-wa Sidae Gubun Gochal)『해양문화재』(Haeyang Munhwajae) 3: 131-173.

김성범 (Kim, Seong-beom). 2009.“中國 蓬萊水城 出土 高麗船.”(Jungguk Bongrae Suseong Chulto Goryeoseon)『한국중세사연구』(Hanguk Jungsesa Yeongu) 27: 233-284.

김성준 (Kim, Seong-jun). 2007.“蓬萊 高麗 古船의 韓國船舶史上의 意義.”(Bongrae

Goryeo Goseon-ui Hanguk Seonbaksa Sang-ui Uiui)『海運物流硏究』(Haeun Mullyu Yeongu) 52: 63-82.

김애경 (Kim, Ae-gyeong). 2007. "韓 · 中 · 日 水中考古學의 現況과 海底 出土 陶瓷器." (Han · Jung · Il Sujung Gogohak-ui Hyeonhwang-gwa Haejeo Chulto Dojagi)『박물관연보』(Bakmulgwan Yeonbo) 15: 19-39.

김용한 (Kim, Yong-han). 2006. "수중문화유산의 보호, 그 현황과 과제." (Sujung Munhwa Yusan-ui Boho, Geu Hyeonhwang-gwa Gwaje)『해양문화학』(Haeyang Munhwahak) 2: 23-35.

김정기 (Kim, Jeong-gi). 1977. "신안 해저문화재 발굴." (Sinan Haejeo Munhwajae Balgul)『文化財』(Munhwajae) 11: 1-7.

문경호 (Moon, Gyeong-Ho). 2010. "1123년 徐兢의 고려 항로와 慶源亭." (1123nyeon Seogeung-ui Goryeo Hangno-wa Gyeongwonjeong)『한국중세사연구』(Hangukjungsesa Yeongu) 28: 485-519.

문경호 (Moon, Gyeong-Ho). 2011a.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와 조창." (Goryeosidae-ui Jounjedo-wa Jochang)『지방사와 지방문화』(Jibangsa-wa Jibang Munhwa) 14-1: 7-36.

문경호 (Moon, Gyeong-Ho). 2011b. "泰安 馬島 1號船을 통해 본 高麗의 漕運船." (Taean Mado 1hoseon-eul Tonghae Bon Goryeo-ui Jounseon)『한국중세사연구』(Hanguk Jungsesa Yeongu) 31: 115-158.

문화재관리국 (Munhwajaegwalliguk). 1980.『신안해저문화재발굴조사보고서』(Sinan Haejeo Munhwajae Balgul Josa Bogoseo). 서울 (Seoul): 문화재관리국 (Munhwajae Gwalliguk).

문화재관리국 (Munhwajaegwalliguk). 1981.『新安海底遺物: 資料篇 (I)』(Sinan Haejeo Yumul: Jaryopyeon (I)). 서울 (Seoul).

문화재관리국 (Munhwajaegwalliguk). 1984.『新安海底遺物: 資料篇 (II)』(Sinan Haejeo Yumul: Jaryopyeon (II)). 서울 (Seoul).

문화재관리국 (Munhwajaegwalliguk). 1985a.『新安海底遺物: 資料篇 (III)』(Sinan Haejeo

yumul: Jaryopyeon (Ⅲ)). 서울 (Seoul): 문화재관리국 (Munhwajae gwalliguk).

문화재관리국 (Munhwajaegwalliguk). 1985b.『莞島海底遺物 (發掘報告書)』(Wandohaejeo yumul (Balgulbogoseo)). 서울 (Seoul): 문화재관리국 (Munhwajaegwalliguk).

문화재관리국 (Munhwajaegwalliguk). 1988.『新安海底遺物 : 綜合篇』(Sinanhaejeoyumul : Jonghapyeon). 서울 (Seoul): 문화재관리국 (Munhwajaegwalliguk).

서긍 (Seo, Geung). 1977.『국역 고려도경』(Gugyeok Goryeodogyeong). 서울 (Seoul): 민족문화추진회 (Minjokmunhwachujinhoe).

서울대학교박물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0.『태안 해저유물과 고려시대 漕運』(Taean Haejeoyumul-gwa Goryeosidae Joun). 서울 (Seoul): 서울대학교 박물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袁曉春(Yuan, Xiaochun). 2011.“봉래(蓬萊) 고려(조선) 고선의 구조와 특징.”(Bongnae Goryeo(Joseon) Goseon-ui Gujo-wa Teukjing)『고려의 난파선과 문화사』(Korea-ui Nanpaseon-gwa Munhwasa).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년 국제학술대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1nyeon Gukjehaksuldaehoe), 목포대학교 (Mokpodaehakgyo): 45-64.

윤용혁 (Yoon, Yonghyuk). 1991.“서산 · 태안지역의 漕運관련 유적과 高麗 永豊漕倉.”(Seosan · Taeanjiyeok-ui Joungwanryeon Yujeok-gwa Goryeo Yeongyejochang)『백제연구』 (Baekjeyeongu) 22: 195-244.

윤용혁 (Yoon, Yonghyuk). 2010.“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Goryeo sidae Seohae Yeonanhaero-ui Gaekgwan-gwa Anheungjeong)『역사와경계』(Yeoksa-wa Gyeonggye) 74: 29-57.

이난영 (Lee, Nan-Young). 1975.“한국 시저의 형식분류.”(Hanguk Sijeo-ui Hyeongsik bullyu)『역사학보』(Yeoksahakbo) 67: 111-146.

이난영 (Lee, Nan-Young). 1992.『한국 고대 금속공예 연구』(Hanguk Godae Geumsok gongye Yeongu). 서울 (Seoul): 일지사 (Iljisa).

李德金 (Lee, Deok-geum) · 蔣忠義 (Jang, Chung-ui) · 鄭甲塤 (Jeong, Ap-gon). 1980.

"新安 海底 沈沒船 내의 中國 瓷器." (Sinan Haejeo Chimmolseon Naeui Jungguk Jagi)『동아문화』(Dongamunhwa) 17: 213-229.

이원식 (Lee, Won-il) · 허일 (Heo, Il). 2006. "韓國에서 發掘한 高麗海船과 中國 蓬萊 第3號 古代船의 比較 考察." (Hangukeseo Balgulhan Goryeohaeseon-gwa Jungguk Bongnae Je3ho Godaeseon Bigyo Gochal)『대한조선학회지』(Daehan Joseon Hakhoeji) 43(4): 29-35.

이종민 (Lee, Jong-min). 2011. "泰安 馬島 해저출토품으로 본 고려 중기 청자의 편년문제." (Taean Mado Haejeochultopumeuro Bon Goryeo Junggi Cheongja-ui Pyeonnyeonmunje)『이화사학연구』(Ilhwa Sahak Yeongu) 42: 23-63.

임경희 (Lim, Kyounghee) · 최연식 (Choi, Yeon-sik). 2009.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Taean Mado Sujung Chulto Mokgan Pandok-gwa Naeyong)『목간과 문자』(Mokgan-gwa Munja) 5: 185-207.

임경희 (Lim, Kyounghee). 2010. "마도 2호선 발굴 목간의 판독과 분류." (Mado 2hoseon Balgul Mokgan-ui Pandok-gwa Bullyu)『목간과 문자』(Mokgan-gwa Munja) 6: 153-174.

임경희 (Lim, Kyounghee). 2011. "마도 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Mado 3hoseon Mokgan-ui Hyeonhwang-gwa Pandok)『목간과 문자』(Mokgan-gwa Munja) 8: 207-226.

장남원 (Jang, Nam-won). 2008. "漕運과 도자생산, 그리고 유통: 海底引揚 고려도자를 중심으로." (Joun-gwa Dojasaengsan, Geurigo Yutong: Haejeoinyang Goryeodoja-reul Jungsimeuro)『미술사연구』(Misulsa Yeongu) 22: 169-198.

장남원 (Jang, Nam-won). 2011. "소비유적 출토 도자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茶禮의 관계." (Sobiyujeok Chulto Dojaro Bon Goryeosidae Cheongja-ui Suyong-gwa Darye-ui Gwangye)『역사와 담론』(Yeoksa-wa Damnon) 59: 389-420.

정의도 (Jung, Eui Do). 2007. "韓國古代靑銅匙箸硏究 - 高麗時代." (Hangukgodaecheongdongsijeoyeongu - Goryeosidae)『석당논총』(Seokdang Nonchong) 38: 61-140.

정의도 (Jung, Eui Do). 2009. "宋 · 遼 · 金 · 元墓 匙箸 및 鐵鋏 出土傾向 - 高麗墓 副葬品과

關聯하여.”(Song · Yo · Geum · Wonmyo Sijeo Mit Cheolhyeop Chulto gyeonghyang - Goryeomyo Bujangpum-gwa Gwallyeonhayeo)『문물연구』(Munmul Yeongu) 15: 53-136.

정의도 (Jung, Eui Do). 2010.“宋 · 遼 · 金 · 元 수저(匙箸) 編年硏究 - 어미형 숟가락의 출현.”(Song · Yo · Geum · Won Sujeo Pyeonnyeonyeongu - Eomihyeong Sutgarak-ui Chulhyeon)『문물연구』(Munmul Yeongu) 17: 10.

죠지 배스 (George F. Bass). 1978.“水中考古學 調査와 發掘.”(Sujunggogohak Josa-wa Balgul)『한국고고학보』(Hanguk Gogo Hakbo) 5: 109-122.

죠지 배스 (George F. Bass). 1979.“水中考古學(續) - 發掘.”(Sujunggogohak(sok) - Balgul)『한국고고학보』(Hangukgogohakbo) 6: 97-109.

주경미 (Joo, Kyeongmi). 2011.『대장장』(Daejangjang). 서울 (Seoul): 민속원 (Minsok won).

한성욱 (Han, Sung-Uk). 2007.“新安船 出土 高麗靑瓷의 硏究.”(Sinanseon Chulto Goryeocheongja-ui Yeongu)『지방사와 지방문화』(Jibangsa-wa Jibang Munhwa) 10(2): 7-32.

한성욱 (Han, Sung-Uk). 2010.“康津 靑瓷의 生産과 流通.”(Gangjin Cheongja-ui Saengsan-gwa Yutong)『文化史學』(Munhwa Sahak) 34: 87-109.

한정훈 (Han, Jeong-Hoon). 2009.“고려시대 漕運制의 海洋史的 의미.”(Goryeosidae Jounje-ui Haeyangsajeok Uimi)『해양문화재』(Haeyang Munhwajae) 2: 161-196.

한정훈 (Han, Jeong-Hoon). 2010.“고려시대 연안항로에 관한 기초적 연구.”(Goryeosidae Yeonanhangno-e gwanhan Gichojeok Yeongu)『역사와 경계』(Yeoksa-wa Gyeonggye) 77: 1-32.

한정훈 (Han, Jeong-Hoon). 2011.“12 · 13세기 전라도지역 私船의 해운활동 - 수중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12 · 13segi Jeolladojiyeok Saseon-ui Haeunhwaldong - Sujung Balgulseonggwa-reul Jungsimeuro)『한국중세사연구』(Hanguk Jungsesa Yeongu) 31: 81-113.

한정훈 (Han, Jeong-Hoon). 2012.“고려말 · 조선초 경상도 해안 역로망의 재편성.”

(Goryeo mal · Joseoncho Gyeongsangdo Haean Yeokromang-ui Jaepyeon seong)『지역과 역사』(Jiyeok-gwa Yeoksa) 30: 77-113.

한혜선 (Han, Hye-sun). 2012a. "문헌기록을 통해 본 瓦器 · 陶器 · 甕器의 用例와 상호관계." (Munheongirok-eul Tonghae Bon Wagi · Dogi · Onggi-ui Yongrye-wa Sanghogwangye)『역사와 담론』(Yeoksa-wa Damron) 64: 199-235.

한혜선 (Han, Hye-sun). 2012b. "마도 1 · 2호선 出水 고려시대 도기의 용도와 量制." (Mado 1 · 2hoseon Chulsu Goryeosidae Dogi-ui Yongdo-wa Yangje)『해양문화재』(Haeyang Munhwajae) 5: 99-154.

홍순재 (Hong, Sun-jae) . 2011. "고려시대 난파선의 구조와 제작기술의 변천." (Goryeo sidae Nanpaseon-ui Gujo-wa Jejak Gisul-ui Byeoncheon)『해양문화재』(Haeyang Munhwajae) 4: 233-288.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Shandongsheng Wenwukaogu Yanjiusuo) · 烟台市博物館 (Yantaishi Bowuguan) · 蓬萊市文物局 (Penglaishi Wenwuju). 2006.『蓬萊古船』(Penglaiguchuan). 北京 (Beijing): 文物出版社 (Wenwu Chubanshe).

Ballard, Robert D. ed. 2008. *Archaeological oceanogra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ss, George F. 1976. *Archaeology Beneath the Sea : A Personal Account*. New York: Harper & Row.

Blot, Jean-Yves. 1996. *Underwater archaeology : exploring the world beneath the sea*. New York: Abrams.

ABSTRACT

A Study on some Kitchen Goods from Shipwrecks in Late Goryeo Period: Focusing on Taean Mado shipwrecks in the thirteenth century

JOO Kyeongmi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in the Taean Mado area of the West coast of Korean peninsula, three shipwrecks were excavated such as Mado No. 1, No. 2, No. 3, which had sunk in the thirteenth century. They are grain transport ship from Jeolla coast to Gaeseong, the capital of Goryeo. They have similar inner structures, especially in which a kitchen area was installed in the bottom center of the ship. In the kitchen area, there always found a fire place for cooking and a lot of vessels made of ceramic or bronze or wood or bamboo. Some vessels were used as diverse food storage containers for grains or soybean paste or salted seafood or fresh water. Some were used for cooking or for tablewares. They provide extraordinary material evidences for studying everyday life of ordinary people in late Goryeo period.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iverse kitchen goods from Mado shipwrecks and their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material culture study.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forms and usages of several vessels from these shipwrecks are very similar to the records of Goryeo vessels illustrated by Xujing, the envoy of Song Dynasty in the 12th Century.

Keywords Shipwreck, Kitchen Goods, Everyday Life Culture, Goryeo Crafts, Underwater Excavation